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09.16.(수) / 총2매 (본문 1, 붙임 1)	
자료 제공	수산연구본부 한기욱 센터장(051-797-4902)	
배포 부서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글로벌 수산 이슈 · 무역 전망 연계 AI 통합분석체계 제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씨 호라이즌' 모델로 수산업 조기경보체계 고도화 방향 제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AI 활용 글로벌 수산이슈 및 무역전망체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산 이슈 분석 모형과 수산물 무역 단기 전망 기능을 고도화하여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분석모형 '씨 호라이즌(SEA Horizon) 1.0'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수산물 시장은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산물은 다른 식품군에 비해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환경 변화가 국내 수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세계 수산시장의 주요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무역 흐름 변화를 데이터에 기반해 전망할 수 있는 분석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그동안 글로벌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 수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씨 워치(SEA Watch)'와 주요 수산물의 수출입을 전망하는 '씨 웨더(SEA Weather)'를 개발·운영하며 정부의 정책 수립과 산업계 대응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두 모형의 분석 결과가 개별적으로 산출되면서, 뉴스에서 포착된 이슈 신호와 수산물 무역 전망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씨 워치(SEA Watch) 2.0은 글로벌 뉴스의 수집·정제 과정을 자동화하고, 대규모 언어모형(LLM)을 활용해 문맥 분석과 품목·국가별 분류, 긍정·부정 신호 분석 기능을 강화했다. 씨 웨더(SEA Weather) 2.0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김·참치·굴·전복·넙치 등 주요 품목으로 전망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환율·가격·생산량 등 주요 변수가 수산물 무역에 미치

는 영향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방법을 개선했다.

씨 호라이즌(SEA Horizon) 1.0은 두 모형을 하나의 분석체계로 연계해 글로벌 수산 이슈의 발생 신호와 이에 따른 무역 흐름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가 주요 시장 변화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련 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향후 씨 호라이즌(SEA Horizon)의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인공지능 기반 결과 요약·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수산식품 수출 특화 챗봇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국어 뉴스의 정제 정확도와 국가별 통계의 일관성, 모형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자의 검증을 병행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한기욱 해외시장분석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글로벌 수산 이슈의 변화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이를 국가·품목별 무역 전망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분석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와 모형 검증, 대시보드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정부와 수산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외시장분석센터 한기욱 센터장(051-797-4902, hankiuk@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AI 활용 글로벌 수산이슈 및 무역전망체계 고도화 연구' 보고서 표지 (JPG 파일 별도 송부)
보고서 원문 URL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384&page=1&idx=1288>

